

厥의 문헌적 고찰

곽재영¹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한의학연구소, 1: 경동한의원

Literature Review on the Reverse

Jae Young Gwak¹,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Eui University, 1: Kyungdong Oriental Clinic

In Neijing(內經) the theory of Reverse(厥) was explained syncope causes by disharmony of emotions irregularity, deficient or excessive Qi(氣虛, 氣實) and blood disorder, it was the causes of cold hypersensitivity of hands and feet except coldness itself, include impairment of Qi circulation and the deficiency of the kidney weakened essence and blood, weakness and damage in the kidney essence, deficiency of the lower part and deficiency of the lower Qi as the major causes. In Shanghanlun(傷寒論) the theory of Reverse(厥) was divided into by disharmony of heat or cold reversal symptom. In Jingyue quanshu(景岳全書), causes of Reverse(厥) was Qi and blood disorder, damps(痰飲), alcohol and sex include syncope. In Dongeuibogam(東醫寶鑑), causes of Reverse(厥) was deficient or excessive Qi, impairment of blood circulation which means the deficiency of blood, essence(精) and blood stasis(瘀血), and disorder of gastrointestinal system which means malfunction of gastrointestinal, damps(痰飲) and toxicity of alcohol. The rest of the causes include San syndrome(痲症), sun stroke(暑病) and heat reversal(熱厥).

Key words : Reverse(厥), syncope, Neijing(內經), Shanghanlun(傷寒論), Jingyue quanshu(景岳全書), Dongeuibogam(東醫寶鑑)

서 론

『黃帝內經』에서는 厥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는 바, 첫 번째는 暴死爲厥의 人事不省이 되는 急性疾患의 의미로, 두 번째는 寒厥과 熱厥을 중심으로 手足冷症의 의미에서 厥症을 자세하게 언급한 이외에 薄厥·煎厥·尸厥 등의 厥症을 제시하고 있다. 또 氣血循環의 障礙와 오래되고 복잡한 병이라는 관점에서 厥을 설명하고 있다¹⁾.

『內經』의 厥症에 대한 인식은 後代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傷寒論』에서 『內經』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寒厥과 熱厥에 대한 治法과 治方을 제시하였고²⁾, 이후 魏晉南北朝와 隋唐·宋代·金元시대를 거쳐 明代에 이르러 厥의 이론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다.

이후 『東醫寶鑑』과 『景岳全書』에서는 厥의 개념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특히 『景岳全書』에서는 厥의 분류를 氣厥·

血厥·痰厥·酒厥·色厥등으로 나누었고 여기에 또 虛實의 개념을 도입해 더 자세히 분류하였는데, 氣厥의 경우는 氣虛와 大怒로 인한 氣逆으로 厥症이 생기고, 血厥의 경우는 大崩·大吐·出產의 出血으로 인한 血脫과 血逆으로 厥이 생기며, 痰厥은 일시에 痰涎이 壅塞하여 氣가 閉해서 厥이 생기는 것이다. 酒厥은 熱厥의 종류로 속에 술로 인한 熱이 쌓여 이로 因해 津液이 枯渴되어 사지로 퍼지지 못해 厥症이 되는 것이며, 色厥은 精을 소모시켜 精虛로 인한 厥症에 속한다.

한편, 이³⁾는 厥은 중풍의 증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음양, 기혈의 불화 및 부족, 간, 신의 기능 실조를 원인으로 보았으며, 이⁴⁾는 厥증의 증상과 원인에 대하여 일반적인 견해와 유사한 견해를 밝힘과 동시에 실신을 유발하는 정신신경학적인 질환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방⁵⁾은 厥증을 열厥, 냉厥, 사지厥냉, 혼도로 분류하고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10/06/21 · 수정 : 2010/07/29 · 채택 : 2010/08/23

1) 김달호, 이종형. 『黃帝內經素問 下』. 서울, 의성당, pp. 922-926

2) 방정균. 厥증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8(2):146, 2005.

3) 이경섭. 厥의 원인에 대한 고찰. 대한한학회지 4(2):64-68, 1983.

4) 이화신, 김지혁, 황의완. 厥증에 관한 문헌적 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4(1):65-75, 1993.

이의 상세한 원인을 고찰하였으며, 유6)는 『내경』과 『상한론』을 중심으로 율증에 대한 개요, 증상, 원인 및 처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와 같이 초기의 율에 대한 개념은 증상을 중심으로 혼도, 수족결냉, 육경병증, 기혈순환장애로 보는 것이 공통적이었으나 점차 다양한 증상과 원인을 갖는 질환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상세하게 설명한 문헌이 『동의보감』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著者는 각 시대별 厥에 대한 개념과 이어서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厥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및 고찰

1. 厥에 대한 각 時代別 文獻的 考察

1) 秦시대

(1) 『黃帝內經』

『內經』에서 厥에 대한 개념은 크게 3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暴死爲闕로 갑자기 의식을 잃어 人事不省이 되는 것을 말한다.

『大奇論』7)에서 暴厥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듣는 것이라 하였고, 厥의 脈象은 脈至如喘이라 하였으며, 『調經論』8)에서는 血과 氣가 더불어 위로 올라가 大闕9)이 되는데 厥한 즉 暴死한다 하였다. 『靈樞·五亂篇』10)에서는 氣가 머리에서 亂한 즉 厥逆이 되고 頭重眩仆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厥症의 각각의 類型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薄厥·煎厥·血厥·大厥로 나누었는데, 『素問·生氣通天論』11)에서는 陽氣는 마음을 번거롭게 하거나 몸을 과로하면 亢盛(張)하여 陰精이 단절되고 火氣가 旺盛한 여름철에 이르기까지 병이 누적되면 사람이 煎厥症을 일으켜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고, 귀가 막혀 들을 수 없게 되며, 大怒한 則 形氣가 絶해져서 薄厥이 되는데 이는 후세의 血厥實證의 原始가 되었고 또 陽氣가 煩勞하고 精絶하여 여름에 지치게 되면 煎厥이 되는데 이는 後世의 暑厥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四肢逆冷이 厥이 된다는 관점으로 즉 手足冷 혹은 四肢不溫이다.

『厥論』12)에서는 寒厥은 寒의 형태로 五指에서 위로 膝部까지 퍼지는 것을 말하였다.

『邪氣藏府病形』13)에서는 心脈이 微澁한 것이 維厥14)인데 여기서 維는 四維를 가리키고 四維는 四肢를 가리키는 것으로 心陽이 不振하여 推運하는 힘이 없고, 氣血이 四肢로 到達하지 못하여 따뜻해지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 하였다.

『五亂』15)에서는 氣가 臂脛에서 亂해지면 四厥이 되는데 四厥은 四肢逆冷을 가리키는 것으로 四肢逆冷의 病因病機는 内部의 陽氣不足에 기인하는 것이며 陽氣가 下部에서 衰해진 것을 寒厥이라 한다 하였다.

四肢逆冷이 厥이 된다는 관점은 후세의 外感病中 厥症의 辨證에 기초가 되었다.

세 번째는 비교적 複雜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厥의 주요 病機는 氣血逆亂 혹은 濁氣가 上逆하여 病이 된 것을 厥·厥逆·厥氣라 한다고 하였다.

六經經氣의 본래 순환을 잃어버린 것을 六經之厥이라 하는데 『厥論』에서는 太陽·陽明·少陽·太陰·少陰·厥陰之厥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16), 그 다음으로 오래된 頭痛을 厥逆이라 하는데 『奇病論』17)에서는 사람의 두통이 오래되어도 낫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묻자 大寒이 骨髓에 이르러 생긴 頭痛으로 역시 齒痛도 생기는데 이를 厥逆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厥이라는 字는 평소 비교적 重한 疾病 앞에 사용되었는데 靈樞厥病에서는 厥頭痛·厥心痛으로 언급되었다.

以外에 厥이 언급된 『內經』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脈要精微論』18)에서는 厥이 成하여 頭部의 病이 된다고 하

12) 上揭書, pp 922, 926.

黃帝問曰 厥之寒熱者 何也? 岐伯曰 陽氣衰於下 則爲寒厥, 陰氣衰於下 則爲熱厥

帝曰 寒厥之爲寒也 必從五指而上於膝者 何也? 岐伯曰 陰氣 起於五指之裏 聚於膝下 而聚於膝上 故陰氣勝 則從五指至膝上寒 其寒也 不從外皆從內也

13) 김달호, 김종한. 『黃帝內經靈樞』 서울, 의성당, p 133

心脈急甚者 爲瘧癘 微急 爲心痛引背 食不下.....微澁 爲血溢·維厥·耳鳴·顛疾

14) 上揭書, p 136

維厥은 四肢(四維)의 厥逆症이다. 四肢를 모든 陽氣의 근본으로 여겨 血이 衰弱하면서 氣가 정체된 것이다.

15) 上揭書 p 739

故氣亂於心 則煩心 噤密 俛首靜伏 亂於肺 則俛仰喘喝 按手以呼 亂於腸胃 則爲霍亂 亂於臂脛 則爲四厥 亂於頭 則爲厥逆 頭重眩仆

16) 김달호, 이종형.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의성당, pp 935-937

太陽經의 脈氣가 厥逆하면 頭部가 腫脹하면서 머리가 무겁고 발로 보행할 수 없으며 발작하면 어지럽다가 넘어진다. 陽明經의 脈氣가 厥逆하면 癱疾을 일으키거나 질주하면서 고향을 지르고 腹部가 脹滿하여 누워있을 수도 없으며 얼굴이 붉어지면서 열이 나고 헛것이 보이면서 헛소리를 지른다. 少陽經의 脈氣가 厥逆하면 갑자기 耳聾症이 나타나고 頰部가 腫脹하면서 열이 나며 脇部에 痛症이 있으면서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太陰經의 脈氣가 厥逆하면 腹部가 脹滿하면서 腹脹하고 大便이 시원하지 않으면서 식욕이 떨어지다가 음식을 먹으면 嘔吐하여 잠을 잘 잘 수 없다. 少陰經의 脈氣가 厥逆하면 입이 마르면서 소변이 붉어지고 복부가 창만하면서 心窩部에 痛증이 있다. 厥陰經의 脈氣가 厥逆하면 하복부가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있다가 복부가 脹滿하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며 누워있기를 좋아하되 무릎을 구부리고 陰器가 收縮되면서 陰囊은 腫脹하며 경장이 내측에 열이 난다.

17) 上揭書, pp 972-973

帝曰 人有病頭痛 以數歲不已 此安得之? 名爲何病? 岐伯曰 當有所犯大寒 內至骨髓 髓者 以腦爲主 腦逆 故令頭痛 齒亦痛 病名曰厥逆 帝曰 善.

5) 방정균. 율증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8(2):146, 2005.

6) 유형천, 광정진, 최창원, 이강녕, 이영수, 김희철. 율증의 병방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1(1):57-90, 2003.

7) 김달호, 이종형. 『黃帝內經素問 下』 서울, 의성당, p 18

脈至如喘 名曰暴厥, 暴厥者 不知與人言 脈至如數 使人暴驚 三四日自止.

8) 上揭書, p 240

血之於氣 并走於上 則爲大厥 厥則暴死 氣復反則生 不反則死

9) 上揭書, p 241

大厥證은 갑자기 발병하는 극심한 厥症을 말하는데 突然昏厥, 不省人事 등이 主症으로 나타나는 卒中風이고, 서양의학에서는 “腦卒中”이라 한다.

10) 김달호, 김종한. 『黃帝內經靈樞』 서울, 의성당, p 739

故氣亂於心 則煩心 噤密 俛首靜伏 亂於肺 則俛仰喘喝 按手以呼 亂於腸胃 則爲霍亂 亂於臂脛 則爲四厥 亂於頭 則爲厥逆 頭重眩仆

11) 김달호, 이종형. 『黃帝內經素問 下』 서울, 의성당, p 59

陽氣者 煩勞則張 精絶 辟積於夏 使人煎厥 目盲不可以視 耳閉不可以聽 潰潰乎若壞都 泊泊乎不可止 陽氣者 大怒則 形氣絶而血菀於上 使人薄厥

였고, 『脈解篇』¹⁹⁾에서는 內脫하여 言語障碍, 運動障碍를 發한다 하였으며, 五志過極으로 厥이 發한다고 하였다.

『熱論』에서는 耳聾·囊縮·四肢厥冷·嚔下困難·意識昏迷를 發한다고 하여 四肢逆冷과 不知人을 病的 進行過程으로서 언급하였다.²⁰⁾

『方盛衰論』²¹⁾에서는 氣의 逆上으로 인하여 手足厥冷과 癩疾이 發한다고 하였고, 『逆順肥瘦篇』²²⁾에서는 衝脈이 敗하여 厥脫, 暴仆의 病이 發生한다고 하였다.

『玉機真藏論』²³⁾에서는 厥을 病的 傳變에 있어서 肝脾의 症狀으로 보아 脇痛, 出食한다고 하였고, 『腹中論』²⁴⁾에서는 誤治로 인하여 發生한 膺腫·頸腫·胸滿·腹脹이 厥逆이라고 하였으며, 『病能論』²⁵⁾에서는 腰痛에서 脈의 不相應 함을 보고 厥이라고 하였다.

『五臟生成篇』²⁶⁾에서는 누워갈 때 몸을 노출시켜 바람에 쓰여 血이 팔다리에 凝滯될 경우에는 厥症을 일으킨다고 하였으며, 『繆刺論』²⁷⁾에서는 다섯 絡脈의 기운이 다 고갈되면 身體의 脈은 변동되어 形體는 知覺하지 못하게 되는 증상을 尸와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尸厥로써 厥을 바라본 것으로 생각된다.

2) 漢시대

(1) 『傷寒論』

張仲景은 그의 저서인 『傷寒論』에서 內經의 厥의 대한 觀點 중 두 번째인 手足逆冷 觀點의 厥로써 外感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厥로 보았다. 아울러 『傷寒論』에서는 厥·厥逆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즉 厥이 언급된 條文²⁸⁾을 살펴보면 厥은 전부 手足冷症만을 의미하며, 寒熱의 相互 偏勝關係에서 寒厥·熱厥이 나타나는데, 寒厥의 경우는 寒邪의 致盛과, 陽氣의 虛衰로 인해 나타나고, 熱厥은 내부에 熱邪가 熾盛해 外로 미치지 못하여 결론적으로 手足冷症이 나타나는데 이 모두가 寒熱의 關係에서 厥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隋唐시대

(1) 『巢氏諸病源候論』²⁹⁾

巢元方の 저서로 陰氣居於下 하고 陽氣居於上하여 陽虛·陰

- 28) 최달영, 『傷寒論釋講』 서울, 대성문화사,
 - 197條 陽明病, 反無汗而小便利, 二三日嘔而咳, 手足厥者, 必苦頭痛 若不咳 不嘔 手足不厥者 頭不痛
 - 294條 少陰病 但厥無汗 而強發之 必動其血 未知從何道出 或從口鼻 或從目出者 是名下厥上竭 爲難治
 - 315條 陰病 下利 脈微者 與白通湯 利不止 厥逆無脈 乾嘔煩者 白通加豬膽汁湯主之 服湯 脈暴出者死 微續者生
 - 317條 少陰病 下利清穀 裏寒外熱 手足厥逆 脈微欲絕 身反不惡寒 其人面赤色 或腹痛 或乾嘔 或咽痛 或利止 脈不出者 通脈四逆湯主之
 - 330條 諸四逆厥者 不可下之 虛家亦然
 - 331條 傷寒先厥 後發熱而利者 必自止 見厥復利
 - 332條 傷寒始發熱六日 厥反九日而利 凡厥利者 當不能食 今反能食者 恐爲除中
 - 334條 傷寒先厥後發熱 下利必自止 而反汗出 咽中痛者 其喉爲痺 發熱無汗 而利必自止 若不止 必使膿血 便膿血者 其喉不痺
 - 335條 傷寒一二日至四五日 厥者必發熱 前熱者後必厥 厥深者熱亦深 厥微者熱亦微 微應下之 而反發汗者 必口傷爛赤
 - 336條 傷寒病 厥五日 熱亦五日 設六日 當復厥 不厥者自愈 厥終不過五日 以熱五日 故知自愈
 - 337條 凡厥者 陰陽氣不相順接 便爲厥 厥者 手足逆冷是也
 - 338條 傷寒脈微而厥 至七八日 其人躁無暫安時者 此爲藏厥 非爲虵厥也
 - 339條 傷寒熱少微厥 指頭寒 默默不欲食 煩燥 數日 小便利 色白者 此熱除也 欲得食 其病爲愈 若厥而嘔 胸脇煩滿者 其後必便血
 - 340條 病者手足厥冷 言我不結胸 小腹滿 按之痛者 此冷結在膀胱關元也
 - 341條 傷寒發熱四日 厥反三日 復熱四日 厥少熱多者 其病當愈 四日至七日 熱不除者 必便膿血
 - 343條 傷寒六七日 脈微 手足厥冷 煩躁 灸厥陰 厥不還者 死
 - 344條 傷寒發熱 下利厥逆 躁不得臥者 死
 - 345條 傷寒發熱 下利至甚 厥不止者 死
 - 347條 傷寒五六日 不結胸 腹滿 脈虛復厥者 不可下 此爲亡血 下之死
 - 348條 發熱而厥 七日下利者 爲難治
 - 349條 傷寒脈促 手足厥逆 可灸之
 - 350條 傷寒 脈滑而厥者 裏有熱也 白虎湯主之
 - 351條 手足厥寒 脈細欲絕者 當歸四逆湯主之
 - 353條 大汗出 熱不去 內拘急 四肢疼 又下利厥逆而惡寒者 四逆湯主之
 - 354條 大汗 若大下利而厥冷者 四逆湯主之
 - 355條 病人手足厥冷 脈乍緊者 邪結在胸中 心下滿而煩 飢不能食者 病在胸中 當須吐之 宜瓜蒂散
 - 356條 傷寒厥而心下悸 宜先治水 當服茯苓甘草湯 却治其厥 不爾 水漬入胃 必作利也
 - 357條 傷寒六七日 大下後 寸脈沈而遲 手足厥逆 下部脈不至 咽啞不利 唾膿血 泄利不止者 爲難治 麻黃升麻湯主之
 - 362條 下利 手足厥冷 無脈者 灸之 不溫 若脈不還 反微喘者 死
 - 366條 下利 脈沈而遲 其人面少赤 身有微熱 下利清穀者 必鬱冒汗出而解 病人必微厥 所以然者 其面戴陽 下虛故也
 - 368條 下利後脈絕 手足厥冷 晡時脈還 手足溫者 脈不還者 死
- 29) 巢元方, 『諸病源候論』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p 126
 - “陰氣居於下 陽氣居於上 陽虛…陰實…陰盛…上乘於陽 衛氣爲之厥逆…寒從背起手足逆冷 陰盛故也”

- 18) 上揭書, p 356
 - 帝曰 病成而變 何謂? 岐伯曰 風成爲寒熱 癘成爲消中 厥成爲癩疾 久風爲癘泄 脈風成爲癘 病之變化 不可勝數
- 19) 김달호, 이종형. 『黃帝內經素問 下』 서울, 의성당, p 32
 - 所謂入中爲瘡者 陽盛已衰 故爲瘡也 內奪而厥 則爲瘡俳 此腎虛也 少陰不至者 厥也
- 20) 김달호, 이종형.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의성당, p 689
 - 黃帝가 “그 병이 陰經과 陽經 둘 다 寒邪에 감촉될 경우에 그 經脈의 호응과 그 병의 형증은 어떠한가?”라고 물으니 기백이 “陰經과 陽經 둘 다 寒邪에 감촉 될 경우에 병든 지 1일에는 太陽經과 少陰經이 다 병드니 곧 頭部에 통증이 있고 입이 마르면서 煩滿하며, 2일에는 陽明經과 太陰經에 다 병드니 곧 복부가 脹滿하면서 몸에 열이 나고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으면서 헛소리를 하며, 3일에는 少陽經과 厥陰經이다 병드니 곧 耳聾症이 생기고 陰囊이 收縮하면서 厥冷해지는데 마지막에는 물이나 음료수도 마시지 못하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6일만에 죽는다”고 대답하였다.
- 21) 김달호, 이종형. 『黃帝內經素問 下』 서울, 의성당, p 990
 - 問曰 有餘者 厥耶? 答曰 一上一下 寒厥到膝 少者秋冬死 老者秋冬生 氣上不下 頭痛 癩疾 求陽不得 求陰不審 五部隔無徵 若居曠野 若伏空室 縣懸乎屬不滿日 是以少氣之厥 令人安夢 其極至迷 三陽絕 三陰微 是爲少氣.
- 22) 김달호, 김중환. 『黃帝內經靈樞』 서울, 의성당, p 794
 - 黃帝曰 少陰之脈獨下行 何也? 岐伯曰 不然 夫衝脈者 五臟六府之海也 五臟六府皆粟焉 其上者 出於頰頰 滲諸陽 灌諸精 其下者 注少陰之大絡 出於氣街 循陰股內廉 入臍中 伏行胛骨內 下至內踝之後屬而別 其下者 并於少陰之經 滲三陰 其前者 伏行出跗屬 下循跗 入大指間 滲諸絡 而溫肌肉 故別絡結 則跗上不動 不動則厥 厥則寒矣
- 23) 김달호, 이종형.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의성당, pp 434-436
 - 是故風者 百病之長也 令風寒客於人 使人毫毛畢直 皮膚閉而爲熱 當是之時 可汗而發也…………… 弗治 肺即傳而行之肝 病名曰肝痺 一名曰厥 脇痛出食 當是之時 可按若刺耳.
- 24) 上揭書, p 846
 - 帝曰 善 有病膺腫 頸痛 脈滿 腹脹 此爲何病? 何以得之? 岐伯曰 名厥逆
- 25) 上揭書, p 950
 - 帝曰 有病厥者 診右脈沈而緊 左脈浮而遲 不然 病主安在? 岐伯曰 冬診之右脈 固當沈緊 此應四時 左脈浮而遲 此逆四時 在左當主病 在腎 頰關在肺 當腰痛也.
- 26) 上揭書, p 242
 - 故人臥 血歸於肝 肝受血而能視 足受血而能步 掌受血而能握 指受血而能攝 臥出而風吹之 血凝於膚者爲痺 凝於脈者爲泣 凝於足者爲厥 此三者 血行 而不得反其空 故爲痺厥也
- 27) 김달호, 이종형. 『黃帝內經素問 下』 서울, 의성당, p 286
 - 邪客於手足少陰·太陰, 足陽明之絡 此五絡 皆會於耳中 上絡在角 五絡俱竭 令人身脈皆動 而形無知也 其狀若尸 或曰尸厥

實·陰盛하여 上乘於陽 되어 衛氣가 厥逆하는 것으로 寒이 背로부터 일어나며 手足逆冷하게 되는데 모두 陰盛한 까닭이라고 하였다.

4) 宋金시대

(1) 『扁鵲心書』³⁰⁾

厥症의 病因은 憂思, 驚恐으로 因해 胃氣가 中焦에 虛閉하여 上승하강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때문에 昏冒強直을 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말하면 厥의 그 根源은 氣에 있고, 下虛한 증이다. 소위 少陰不至하고, 內脫하여 厥症이 된 것을 瘧非라고 부르는데 腎虛때문이라고 하였다.

(2) 『三因極一病證方論』³¹⁾

寒厥은 多慾하여 精이 奪한 故로 陽衰陰盛 되어 不能參營其 經絡하며, 熱厥은 醉飽入房으로 精虛하여 熱한 까닭으로 陰盛陽盛하고 熱入於胃하고 腎氣衰하여 陽氣獨盛한 것이라고 하여 寒厥과 熱厥의 原因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3) 『劉河間三六書』³²⁾

煎厥과 薄厥證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煎厥症은 主熱하며 陽氣煩勞 積於夏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熱厥이 생겨서 눈이 멀어서 볼 수 없고, 귀가 단혀 들을 수 없는 것이라 하면서 처방으로 人參散을 제시하였다.

薄厥證은 主肝하고 陽氣大怒한 則 形氣가 絶하고 血脈이 上部에서 막혀 胸中에서 薄厥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赤茯苓湯을 제시하였다.

5) 元시대

(1) 『丹溪心法』³³⁾

厥逆의 原因을 氣虛·血虛·有痰·有熱·有外感으로 나누어 脈의 變化를 살폈으며, 특히 氣虛를 위주로 언급하였다.

(2) 『脈因證治』³⁴⁾

“寒厥은 陰氣가 勝한 것이므로 手足이 寒하고 熱厥은 陽氣가 勝한 것이므로 手足이 熱하다. 厥은 邪氣가 亂하여 陽氣가 逆한 것으로 少陰腎脈不至이며, 腎氣衰少하여 精氣가 없어지거나, 風으로 하여금 急迫하게 하여 위로는 胃脘에 入하고 宗氣는 반

대로 心下에 結하여 陽氣는 하부로 물러가고 熱은 股腹으로 돌아와 陰邪와 함께 사람으로 하여금 不仁케한다. 또 痰厥·骨厥·肝厥·酒厥·氣厥·風厥·陽明厥은 모두 氣逆한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6) 명시대

(1) 『醫學正傳』³⁵⁾

“陽厥이 極甚하면 身冷하여 陰證을 나타내는데 脈微欲絶而 死者는 極熱한 所致”라고 하였다.

(2) 『醫學入門』³⁶⁾

厥症의 의미와 煎厥·薄厥·尸厥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특히 六經厥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厥症은 俠義의 手足厥冷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六經의 厥症으로서, 厥陰 所主가 되며 太陰·陽明 所合이 되는 宗筋과 脾胃經의 病理가 複合하여 보다 조직적이며 惡質의이며 廣義의 인 병리작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內經』<氣厥論>에 厥은 氣가 逆한다는 뜻으로 무릇 移寒을 하며 移熱을 하여 寒과 熱의 病邪를 轉移하는 五臟 또는 六腑의 병리로 나타나는 병이거나 혹은 잠복한 熱이 深化하여 신체를 振動하며 戰慄하게 하거나 혹은 虛寒이 심해져 煩燥症을 발생하는 따위를 모두 厥이라 이른다 하였다.

아울러 六經厥의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他醫書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인데 太陽經의 厥症은 眩暈이 나서 넘어지며 行步가 어려운 것이고, 陽明經의 厥症은 服滿하여지며 癲疾이나 狂症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少陽經의 厥症은 귀가 暴聾하며 脇肋部가 아프게 되는 것이며 太陰經의 厥症은 배가 脹脹하며 음식을 먹으면 上嘔下泄을 하게 되는 것이다. 少陰經의 厥症은 心痛하며 口舌이 乾燥하게 되는 것이고 厥陰經의 厥症은 外生殖器가 收縮하며 膝部가 굽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35) 虞搏, 『醫學正傳』 서울 성보사 pp 264-266
“河間《原病式》曰: ...陽厥極深或 失下而至於身冷 反見陰證脈微欲絶而 死者 此爲熱極而然.”

36) 李樞, 『醫學入門』台北, 台聯國風出版社, p 438
〔厥證〕不獨手足厥, 宗筋脾胃合爲孽, <內經氣厥>篇:厥者, 氣逆也. 凡移寒移熱, 或伏熱深而振慄, 或虛寒甚而發躁, 皆謂之厥, 不但手足厥冷而已, 宗筋, 陰器也. 厥陰所主, 脾胃脈皆輔近宗筋, 寒厥則陰縮而四肢冷, 熱厥則津乾不榮四肢, 溺赤, 而手足熱. 是六經之厥, 皆統於肝與脾胃也. 太陽陽明足難行, 經曰:巨陽之厥, 腫首頭重, 足不能行, 發爲胸仆, 而僵仆倒地. ...中略...

外感寒泣暑相煎, 寒泣血發厥, 脈沈微者, 理中湯 四逆湯, 暑耗氣發厥, 脈虛者, 白虎湯, 或香茹散加羌活. 夏月勞役犯房, 以致陽氣煩擾, 目盲耳閉<內經>謂之煎厥, 言熱氣煎逼, 損腎與膀胱而成也. 宜四君子湯, 加速志 防風 赤芍 麥門冬 陳皮. 凡外感發熱者, 宜解散藥中加姜汁. 內傷薄厥痰火挾, 內因喜怒傷氣傷志, 氣逆而不下行, 則血積於心胸, <內經>謂之薄厥, 言陰陽相搏, 氣血奔并而成. 古法暴厥氣逆身冷者, 蘇合香丸 八味順氣散. 怒氣逆甚, 嘔血衄血發厥者, 四物湯去地黃, 加赤茯苓 人參 桔梗 陳皮 麥門冬 檳榔 姜煎服, 或六鬱湯. 氣實多怒, 忽大叫發厥者, 乃痰閉於上, 火起於下而上衝, 用香附五錢 川芎七錢 生甘草三錢, 童便 姜汁煎服. 又青黛 人中白 香附爲丸服. 稍愈, 用導痰湯加黃連 香附, 煎香當歸龍薈丸. 因勞役飲水, 被驚發厥者, 六君子湯加芎 連 竹瀝 姜汁. ○內傷痰火發厥, 脈弦滑者, 二陳湯加竹瀝, 挾寒, 加生附子, 挾火, 加芎 連 山梔 竹瀝, 肥人, 加人參 姜汁. 凡厥證爲癲 爲胸仆爲妄見, 或腹脹 二便不利, 或嘔, 或心痛 皆痰火 鬱氣病也. 總因酒色陰陽衰, 熱厥. 因醉飽入房, 濕熱鬱於脾土, 不能滲榮四肢, 陽氣獨盛, 故手足心熱, 宜補中益氣湯 升陽散火湯 火鬱湯. ○寒厥因多慾奪精, 元陽大有所損, 不能滲營經絡, 陰氣獨在, 故手足皆寒, 宜十全大補湯加附子, 或當歸四逆湯. ○尋常氣虛發厥者, 四君子湯. 血虛發厥者, 四物湯. 有火加知母 黃柏, 虛寒加附子.

30) 扁鵲, 『扁鵲心書』 영인본, pp 49-50
“憂思驚恐致胃氣虛閉於中焦不得上升下降故昏冒強直...皆根氣下虛之證 所謂少陰不至者...內奪而厥 卽爲瘧非 此腎虛也”
31) 陳無擇, 『三因極一病證方論』 일증사, pp 85-87
“寒厥者...陽氣衰 不能參營其經絡...熱厥者...熱入於胃 絡脈滿 經脈虛 陰虛陽入 腎氣衰 陽氣 獨勝...六經厥者...尸厥.陰氣盛於上卽下虛...邪氣 逆逆卽陽氣亂而不知人...寒厥卽因多慾 而奪其精 故治陽衰陰盛 熱厥卽 醉飽入房 精虛卽熱入 故致陰虛陽盛 其厥之人 多以不勝乘其所勝 氣不 得行...尸厥亦然 正由藏氣相刑或與 外邪相忤...閉於經絡 諸脈匿伏...”
32) 劉河間, 『劉河間三六書』 서울, 성보사, pp 135-136
煎厥症 主熱 陽氣煩勞 積於夏 今人熱厥 目盲不可視 耳閉不可聽 人參散 主之治頭厥氣逆頭目昏憤 聽不聞目不明 七氣善怒 ... 薄厥證 主肝 陽氣大怒則 形氣絕而 血脈菀於上 今人薄厥於胸中 赤茯苓湯 主之治薄厥暴怒則傷肝 氣逆胸中不和 甚則嘔血衄血也...
33) 朱震亨, 『丹溪心法』 서울, 대성문화사, p 57, 658, 1982.
“厥逆也 手足因氣血...因氣虛爲主 有因氣虛 氣虛脈細血虛脈大 熱厥脈 數 外感脈數沈實 有痰脈弦 因痰者...”
34) 朱震亨, 『脈因證治』上海, 상해과학기술출판사, pp 6-7
“寒厥...陰氣勝卽寒...熱厥...陽氣勝卽熱...皆因邪氣亂, 陽氣逆, 是少陰腎 脈不至也, 腎氣衰少, 精氣奔逸, 使風促迫, 上入胃脘, 宗氣反結心下, 陽氣 退下, 熱歸股腹, 與陰相助, 令人不仁...痰厥...骨厥...肝厥...酒厥...氣 厥...風厥...陽明厥...皆氣逆之所爲也.”

內傷으로 인한 경우로 薄厥과 痰火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煎厥·尸厥·寒厥과 熱厥의 治法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3) 『萬病回春』³⁷⁾

陽厥과 陰厥의 차이를 脈으로 비교하였는데 陽厥은 脈이 滑하면서 沈實하고, 陰厥은 細하면서 沈伏하다고 했다. 또 厥이 생기면 脈이 단단해지고 逆은 손발이 싸늘해지는 手足逆冷이라고 하였다.

寒熱의 厥逆을 陽厥·陰厥로 구분하였는데 陽厥은 熱이 깊어질수록 손발이 싸늘해지는 것도 더 深해지는 것이니, 대개 陽이 極에 달하면 손발이 싸늘해지는 것이다. 급히 六一順氣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陰厥은 처음부터 몸이 차갑고 맥은 침하고 팔다리가 싸늘하고 다리가 오그라들며 입술은 시퍼렇게 된다고 했다. 또 간혹 설사는 나지만 갈증은 없고 소변이 흰 것이 그 증상에 해당하며 四逆湯·理中湯을 쓴다고 하였다.

나아가 陽厥과 陰厥의 증상을 더 구분하였는데 陽厥은 처음에 병이 들 때부터 몸에 熱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대소변이 막히기도 하며, 간혹 嘔기도 하고 간혹 물을 마시기도 하며, 간혹 팔다리를 휘저으며 몸부림을 치기도 하며, 煩躁가 생겨 편히 누워 자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면서 정신이 어질어질하고 손발이 싸늘한 증상이 나타난다.

陰厥은 처음 병이 들 때에는 팔다리가 싸늘하고 맥은 침세하며 다리를 오그리고 누우며 오한이 들어 옷을 겨입고 이불을 덮으며,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고, 간혹 泄瀉에 사지 않은 음식이 섞여 나오면서 팔다리가 싸늘한 증상을 말한다고 하였다.

(4) 『景岳全書』³⁸⁾

37) 龔廷賢, 『對譯萬病回春』 범인문화사, p 535, 2007.

脈 陽厥脈滑而沈實, 陰厥脈細而沈伏. 厥者, 其脈短也. 逆者, 手足厥冷也. 其症不一. 散之方書者甚多. 今始撮其大概. 且如寒熱厥逆者而爲陰陽二厥也. 陽厥者, 是熱甚則厥深. 蓋陽極則發厥也. 急宜六一順氣湯治之. 陰厥者, 始得之身冷脈沈. 四肢厥逆. 足踰臥. 脣口青. 或自利不渴. 小便色白. 此其候也. 治以四逆. 理中之類. 凡初得病. 身熱頭痛. 大小便閉. 或畏熱. 或飲水. 或揚手擲足. 煩躁不得安臥. 謔語昏憤而厥. 此陽厥也. 如得病後. 四肢厥冷. 脈沈而細. 足攣臥而惡寒. 引衣蓋覆. 不飲水. 或下利清穀而厥者. 陰逆也.

38)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경당, pp 207-209

論證 厥逆之證, 危證也. 蓋厥者盡也, 逆者亂也, 卽氣血敗亂之謂也, 故『內經』特重而詳言之. 如云卒厥, 暴厥者, 皆厥逆之總名也. 如云寒厥·熱厥者, 分厥逆之陰陽也. 如云連經, 連臟者, 論厥逆之死生也. 再若諸經臟腑之辨, 亦既詳矣. 又近世猶有氣厥·血厥·痰厥·酒厥·臟厥·蛔厥等證, 亦無非本之經義. 觀『內經』諸論已極明顯, 奈何後人猶不能察, 凡遇此證, 則悉認之爲中風, 竟不知厥逆爲何病, 而通作風治, 害孰甚焉! 余深悲之, 故於前非風門悉力辨正. 至於治此之法, 卽當以前非風證治互相參用, 正所以治厥逆也. 其有未盡等證, 仍列如後條.

論治 共七條

一. 寒厥熱厥之治: 凡寒厥者, 必四肢清涼, 脈沈微不數, 或雖數而無力, 或畏寒喜熱, 引衣自覆, 或下利清穀, 形證多惺惺.

熱厥者, 必先多熱證, 脈沈滑而數, 畏熱喜冷, 揚手掉足, 或煩躁不寧, 大便秘赤, 形證多昏冒. 凡治此二者,

一. 氣厥之證有二, 以氣虛·氣實皆能厥也. 氣虛卒倒者, 必其形氣索然, 色清白, 身微冷, 脈微弱, 此氣脫證也. 氣實而厥者, 其形氣憤然勃然, 脈沈弦而滑, 胸膈喘滿, 此氣逆證也. 經曰: 大怒則形氣絕而血菀於上, 卽此類也.

一. 血厥之證有二, 以血脫·血逆皆能厥也. 血脫者, 如大崩大吐, 或產血盡脫, 則氣亦隨之而脫, 故致卒仆暴死. 血逆者, 卽經所云血之與氣并走於上之謂, 又曰大怒則形氣絕而血菀於上之類也. 夫血因氣逆, 必須先理其氣, 氣行則血無不行也, 宜通瘀煎或化肝煎之類主之, 俟血行氣舒, 然後

厥逆이라는 症狀은 危症으로 대개 厥은 盡이고 逆은 亂이니 氣血이 敗亂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內經에서 특별히 중시하여 상세히 말하였는데 卒厥, 暴厥이라는 것은 모두가 厥逆을 총괄하여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寒厥, 熱厥이라는 것은 厥逆의 陰陽을 나눈 것이고 連經, 連臟이라는 것은 厥逆의 死生을 論한 것이다. 그리고 諸經과 臟腑의 구별을 상세히 논하였다. 또한 氣厥·血厥·痰厥·酒厥·臟厥·蛔厥 등의 증상이 있으며, 역시 經의 근본을 두지 않는 것이 없으니 內經의 諸論을 살펴보면 이미 뚜렷한데 후인들은 中風으로만 인식하고 厥逆이라는 병은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있어 그 害가 甚하다고 하였다.

寒厥과 熱厥의 症狀을 나누었는데 寒厥은 반드시 四肢가 清涼하고 脈은 沈微不數하거나 또는 비록 數하여도 無力하며 또는 畏寒喜熱하여 옷을 끌어당겨 스스로 덮으며 清穀을 下利한다고 하였고 熱厥은 반드시 먼저 熱證이 많으니 脈은 沈滑하면서 數하고 畏熱喜冷하며 揚手掉足 하는데 或은 煩躁不寧, 大便秘赤하며 形證은 대부분 昏冒하다고 했다.

氣厥을 氣虛와 氣實로 구별했는데 氣虛는 形氣가 索然하고 얼굴색이 清白하며 몸은 약간 冷하고 脈은 微弱해 氣脫證이고, 氣實은 形氣가 憤然, 勃然하고 脈은 沈弦하면서 滑하고 胸膈이 喘滿하니 이것은 氣逆證으로 大怒하면 形氣가 絶하고 血이 上에 쌓이게 된다고 한 것이 이 종류라고 하였다.

血厥은 血脫과 血逆으로 나누었는데 血脫은 大崩·大吐·出產의 出血로 脫하면 氣도 역시 脫하게 되어 卒倒, 暴死하게 되는 症이다. 血逆은 血이 氣와 더불어 上에서 偏勝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痰厥은 일시에 痰涎이 壅塞하여 氣가 閉해서 昏憤한 것으로 痰氣가 조금 열린 것을 깨닫게 되면 곧 病의 根本을 치료하라 하였는데 痰을 치료하지 않는 이유는 痰을 攻할수록 오히려 虛해져서 痰이 甚해질까 두렵기 때문이라 하였다.

酒厥은 熱厥의 종류로 전적으로 中風과 비슷한데 輕하면 그대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으나 重하면 갑자기 運倒하고 홀연히 昏憤하며 或은 煩躁 或은 不語 或은 痰涎이 넘치고 혹은 氣喘, 發熱, 或은 咳嗽 或은 吐血을 하니 단지 살펴서 大便이 乾燥하고 脈實, 喜冷하면 이것은 濕熱이 上壅한 증상이라고 하였다.

色厥은 두 가지로 하나는 暴脫이고 하나는 動血이다.

暴脫로 色厥이 된 경우는 情慾을 방종하게 써서 事後에 氣

隨證調理.

一. 痰厥之證, 凡一時痰涎壅塞, 氣閉昏憤, 藥食俱不能通, 必先宜或吐或開以治其標, 此不得不先救其急也. 但覺痰氣稍開, 便當治其病本,

一. 酒厥之證, 卽經所云熱厥之屬也, 又經云酒風者, 亦此類也, 凡縱飲無節之人, 多有此病. 方其氣血正盛, 力能勝之, 不知酒害之何有, 及其將衰, 則酒之侮人, 斯可畏耳. 酒病極多, 莫知所出, 其爲酒厥, 則全似中風, 輕者猶自知人, 重者卒爾運倒, 忽然昏憤, 或躁煩, 或不語, 或痰涎如湧, 或氣喘發熱, 或咳嗽, 或吐血, 但察其大便乾燥, 脈實喜冷者, 此濕熱上壅之證,

一. 色厥之證有二: 一曰暴脫, 一曰動血也. 凡色厥之暴脫者, 必以其人本虛, 偶因奇遇, 而悉力勉爲者有之, 或因相慕日久, 而縱竭情慾者亦有之, 故於事後則氣隨精去, 而暴脫不返. 又色厥之動血者, 以其血氣并走於上, 亦血厥之屬也, 但與大怒血逆者不同, 而治法亦有所異. 蓋此因慾火上炎, 故血隨氣上, 必其情慾動極而慾不能遂者有之, 或借麩藥以強遏鬱火者亦有之. 其證則忽爾暴吐, 或鼻衄不能禁止, 或厥逆, 或汗出, 或氣喘, 或咳嗽, 此皆以陰火上衝而然.

가 精을 따라 나가버려 暴脫하여 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이고, 動血로 色厥이 된 것은 氣血이 위에서 偏勝한 것으로 血厥에 속한다. 증상으로 갑자기 땀하고 또는 鼻衄하여 막을 수 없고 또는 厥逆 또는 汗出 또는 氣喘 또는 咳嗽하게 되니 이 모두는 陰火가 上衝하여 생긴 症이라 하였다.

7) 清시대

(1) 『證治彙補』³⁹⁾

厥에는 手足厥冷한 것과 人事不省하는 二種이 있다고 하고, 傷寒의 手足厥冷의 厥은 陽厥, 陰厥로 분류하고, 人事不省의 厥은 寒厥, 熱厥로 분류해 다르다고 하였다.

厥의 外候는 卒然昏倒 手足冰冷 面色不澤 或昏冒不止 牙關緊急 或六脈沈伏하며 마치 中風과 類似하나 痰聲이 없는 것이 差異라고 하여 中風과의 區別點을 언급하였다.

또 世間에 卒然昏冒 不省人事 하는 것을 厥이라 하고, 方書에는 手足厥冷을 厥이라 하였지만, 厥이란 氣逆이니 熱이나 寒에서 移하거나 或 伏熱이 甚하여 戰慄하고 或 虛寒이 甚하여 發躁하는 모두를 厥이라하여 手足厥冷만을 厥이라고 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2) 『辨證奇聞』⁴⁰⁾

陽厥과 陰厥의 症狀과 그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陽厥은 사람이 갑자기 發熱이 나고 수족이 얼음처럼 차지며, 말이 잘 되지 않고 頭暈眼昏하는데 이를 陽厥이라 하였다. 陽厥은 陰血이 陽氣中으로 歸元하지 못해서 생기는데 마치 불사르는 것처럼 內熱이 생기는데 겉으로는 假寒象이 나타나 수족이 차게 된다. 이 증상은 傷寒中에서 제일 많다.

陰厥은 사람이 夜間에 發熱이 나고 일시에 厥逆이 되면서 昏暈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데 手足은 약간 따뜻하고 喉中에는 痰響이 있으나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이다.

陰厥은 陽氣가 虛해서 陰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생기는 것으로 補陰而合陽의 治法을 쓴다고 하였다.

(3) 『張氏醫通』⁴¹⁾

39) 李用粹, 『證治彙補』台北, 旋風出版社, pp 406-413
 “世以卒然昏冒 不省人事爲厥 方書以手足厥冷爲厥 厥者氣逆也 凡移熱移寒 或伏熱甚而戰慄 或虛寒 甚而發躁此謂之厥 不獨手足厥冷而已也… 外候：卒然昏倒 手足冰冷 面色不澤 或昏不知 牙關緊急 或六脈沈伏狀若中風 而無痰聲 之異”
 40) 錢松, 『辨證奇聞』서울, 행림출판사, p 130
 人有日間忽然發熱 一時厥去 手足冰冷 語言惶惑 痰迷心竅 頭暈眼昏 此陽厥也 陽厥者 乃陰血不歸於陽氣之中 而內熱如焚 外反現假寒之象 故手足冷也 此等之症 傷寒中最多… 人有夜間發熱 一時厥逆昏暈 暴亡如死人狀 惟手足溫而 喉中痰響 不能出聲 此陰厥也 陰厥者 陽氣虛而不入陰 今補陰而合陽
 41) 張璠, 『張氏醫通』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pp 99-100
 …厥之寒熱者何也 陽氣衰於上 則爲寒厥 陰氣衰於下 則爲熱厥 曰陽厥者 因善怒而得也 曰風厥者 手足搖擗 汗出而煩滿不解也 曰痿厥者 痿病與厥雜合 而足弱痿無力也 曰痺厥者 痺病與厥雜合 而脚氣頑麻腫痛 世謂脚氣衝心者是也 曰厥者 臥出而風吹之 血凝於膚者爲痺 凝於脈者爲泣 凝於足者爲厥是也 今人又以忽然昏暈 不省人事 手足冷者爲厥 仲景論傷寒 則以陽證傳陰 手足寒者爲熱厥 主以四逆散 陰證惡寒手足寒者爲寒厥 主以四逆湯 內經厥論之義則不然 蓋足之三陽 起於足五指之表 三陰起於足五指之裏 故陽氣勝則足下熱 陰氣勝則從五指至膝上寒 其寒也不從外 皆從內也 論得寒厥之由 以其人陽氣衰 不能滲榮其經絡 陽氣日損 陰氣獨在 故手足爲之寒也 附子理中湯 論得熱厥之由 則謂其人必數醉若飽以入房 氣聚於脾中腎氣日衰 陽氣獨勝 故手足爲之熱也 加減八味丸

熱厥·寒厥·風厥·痿厥·痺厥·厥痺의 原因과 症狀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煎厥·薄厥·風厥·骨厥·臂厥·舒厥·陽明厥·尸厥의 症狀과 處方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

厥의 症狀은 忽然昏倒 人事不省, 手足厥冷한 것을 말하는데,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설명한 熱厥과 寒厥을 『內經』의 본뜻과 다른 것으로 보았다.

즉 陽氣가 衰하여 그 經絡으로 滲榮하지 못해 陽氣는 날로 衰해지고 陰氣 혼자 남게 되어 手足이 차지는 것을 寒厥이라 하고 附子理中湯을 처방하였다. 자주 술에 醉해 入房하고 그 기가 脾中에 쌓이고 腎氣는 날로 衰해져 陽氣혼자 獨勝하면서 手足이 熱하게 되는데 이를 熱厥이라 하며 加減八味丸을 처방하였다.

즉 『內經』의 寒厥, 熱厥은 그 原因이 人體內的 元氣의 盛衰에 따라 寒厥, 熱厥이 나뉘지는 반면에 傷寒論에서는 外部의 寒邪, 熱邪에 의해 寒厥, 熱厥이 나뉘진다고 하였다.

(4) 『醫宗金鑑』⁴²⁾

手足厥逆에서 三陰經의 各各의 關의 有無에 대해서 論했는데 太陰經은 厥逆은 없고 手足自溫하고, 少陰經은 寒厥이 있고 熱厥은 없으며, 厥陰經은 寒熱二厥이 있는데, 寒厥은 다만 寒하고 不熱하며, 熱厥은 熱로 말미암아 關하고 厥로 말미암아 熱하니 서로 證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5) 『血證論』⁴³⁾

雜病의 厥과 伏火의 厥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雜病之厥은 吐利가 멎지않고 脈脫하고 氣微하며 寒은 있고 熱은 없다고 했다. 伏火之厥은 關後에 熱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口不和, 便不通, 小便不清, 心中疼痛, 煩躁不寧, 惡明喜暗, 渴欲得飲, 吐衄으로 인해 厥이 발생하는데 이 모두는 眞熱假寒의 狀況이라고 하였다.

8) 朝鮮 시대

(1) 『東醫寶鑑』

『東醫寶鑑』에서 언급되는 厥의 의미는 『內經』의 厥의 의미 중 氣逆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氣逆의 의미를 지니는 내용도 포함해서 살펴보았다.

① 中氣⁴⁴⁾

“사람이 갑자기 기뻐하면 陽을 傷하고, 갑자기 성내면 陰을 傷한다. 근심으로 마음이 울적해지면 대부분 氣가 厥逆하여 가래 끓는 소리가 나고 의식을 잃으며 입을 악문다. 이 때 中風으로 여기고 약을 쓰면 대부분 사람을 죽이게 된다.” 하여 氣가 厥逆하는 현상을 中氣로 설명하였다.

② 氣逆⁴⁵⁾

42) 吳謙, 『醫宗金鑑』中國醫學大系 49권, 서울, 도서출판 경담, pp 103-104
 “手足厥逆…太陰經無厥逆而有手足自溫 少陰經有寒厥而無熱厥 厥陰經有寒熱二厥 寒厥者 祛寒而不熱也 熱厥者 由熱而厥由厥而熱 熱厥相因無休息也 當辨陰陽淺深”
 43) 唐宗海, 『血證論』북경, 인민위생출판사, p 83
 “雜病之關, 吐痢不止, 脈脫氣微, 有寒無熱, 伏火之厥, 卽厥後微露熱形 口不和, 便不通, 小便不清, 心中疼痛, 煩躁不寧, 惡明喜暗, 渴欲得飲, 吐衄隨厥而發, 皆見眞熱假寒之象.”
 44) 윤석희, 김형준외, 『對譯東醫寶鑑』경남, 동의보감출판사, p 68
 本事曰, 凡人暴喜傷陽, 暴怒傷陰, 憂愁佛意, 氣多厥逆, 便覺涎潮, 昏塞, 牙關緊急, 若概作中風用藥, 多致殺人
 45) 上揭書, p 76
 亂于頭, 則爲厥逆, 頭重眩仆. ② 入門曰, 氣逆者, 氣自腹中, 時時上衝也.
 ③ 內經曰, 諸逆衝上, 皆屬於火.

『靈樞』에 “머리에서 어지러워지면 厥逆이 되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하며 쓰러집니다.”라고 하였으며, 『入門』에 “氣逆이란 뱃속에서 수시로 氣가 치고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內經』에는 “모든 厥逆으로 치고 올라오는 것은 火에 속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氣逆의 의미가 언급된 곳은 九氣⁴⁶⁾, 怒⁴⁷⁾, 七情動血⁴⁸⁾, 薄厥症⁴⁹⁾, 五臟正經自病⁵⁰⁾, 肝傷證⁵¹⁾, 氣鬱脇痛⁵²⁾에 나타나며, <嘔吐門>의 嘔吐之因⁵³⁾에 모든 치고 올라오는 것은 火에 속한다고 하였다.

③ 痰厥⁵⁴⁾과 痰厥頭痛⁵⁵⁾

痰厥은 속이 虛한 상태에서 寒을 받아 痰氣가 막힌 것으로 손발이 싸늘해지고 마비되며, 어지러워 넘어지는 것이며, 痰厥頭痛은 두통이 생길 때마다 양 볼이 푸르며 누령고 眩暈이 있으며, 눈을 뜨려하지 않고 말하기를 싫어하며, 몸이 무겁게 가라앉고朦朧하며 吐하려고 하는 것은 厥陰과 太陰의 合病으로 痰厥頭痛이라고 하였다.

④ 厥逆頭痛⁵⁶⁾

큰 추위가 침범하여 안으로 骨髓에 이르면 腦가 骨髓의 주인이기 때문에 氣가 腦로 거슬러 올라 頭痛과 齒痛이 생긴다. 이것이 厥逆頭痛이다. 厥이란 거슬러 오르는 것이다. 邪氣가 陽經으로 거슬러 오르면 痛症이 생기고,甚하면 厥症이 되어 頭痛과 齒痛이 생긴다고 하였다.

⑤ 氣厥頭痛⁵⁷⁾

氣厥頭痛은 氣血이 虛해 邪氣가 거슬러 올라 頭痛이 있는 것인데, 머리가 아프고 귀가 울며, 九竅가 잘 통하지 않으며, 양

太陽穴이 통증이甚한 것이 氣虛頭痛이다.

⑥ 熱厥頭痛⁵⁸⁾

熱厥頭痛은 頭痛과 煩熱이 있고 겨울의 큰 추위에도 오히려 추위와 바람 쐬기를 좋아하며, 통증이 잠시 멎어도 우연히 따뜻한 곳에 오거나 불을 보면 다시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⑦ 濕厥頭痛⁵⁹⁾

濕厥頭痛은 『東醫寶鑑』에 처음 출현하는 용어으로써 비를 맞고 濕에 상하여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우며 아픈 것으로, 흐리거나 비가 오면 더 심해진다고 하였다.

위에 厥이 언급된 頭痛들은 厥에 命名한 邪氣가 지나침과 동시에 위로 氣逆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⑧ 厥心痛⁶⁰⁾

厥心痛은 內外의 사기가 心包絡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부의 邪氣가 心の 支脈을 침범해서 생긴다.

厥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痛症이 少陰과 厥陰의 氣가 거슬러 올라 치받아 생기며 痛症이 극심하면 쓰러지기 때문에 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厥心痛은 다른 臟의 병이 침범해서 아픈 것으로, 사기가 心臟에 있어도 심통이 있다. 寒厥로 심통이 있을 때는 손발이 차면서 온몸에 冷汗이 나고 소변이 맑으며, 渴症이 없고 기력이 없다. 熱厥로 심통이 있을 때는 몸에 열이 나고 발은 차가우며, 痛症이 심하고 煩躁가 있으며, 脈은 洪大하다.

⑨ 厥有寒熱⁶¹⁾

厥이란 氣가 거슬러 오르는 것으로, 寒厥은 손발이 찬 것이고 熱厥은 손발에 열이 나는 것이다. 陽이 아래에서 衰하면 寒厥이 되고 陰이 아래에서 衰하면 熱厥이 되는데 이는 陰陽의 氣가 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厥이라고 한다.

또 厥症은 이기지 못하던 것이 이기는 것을 눌러서 생기는 데 腎이 脾로 寒을 옮기면 寒厥이 되고, 心이 腎으로 熱을 옮기면 熱厥이 된다. 『綱論』의 寒熱은 전부 腎의 精氣가 몸 안에서 고갈되어 생긴 것이다.

⑨-① 寒厥⁶²⁾

58) 上揭書, p 459

頭痛煩熱, 雖冬天大寒, 猶喜風寒, 其痛暫止, 略來暖處, 或見烟火, 則其痛復作

59) 上揭書, p 460

冒雨傷濕, 頭重眩痛, 遇陰雨則甚

60) 上揭書, p 657

厥心痛者, 因內外邪犯心之包絡, 或他藏之邪犯心之支脈. 謂之厥者, 諸痛皆少陰厥陰氣逆上衝, 又痛極則發厥也. 『入門』厥心痛者, 他藏病干之而痛也. 邪在心, 則亦心痛. 『綱目』寒厥心痛者, 手足厥逆而通身冷汗出, 尿清不渴, 氣微力弱, 急以朮附湯溫之. 熱厥心痛者, 身熱足冷, 痛甚煩躁, 其脈洪大.

61) 上揭書, p 784

厥者, 氣逆上也. 世謬傳爲脚氣. 內經曰, 寒厥者, 手足寒也. 熱厥者, 手足熱也. 蓋陽衰於下則爲寒厥, 陰衰於下則爲熱厥, 陰陽之氣不相接續則爲厥. 『綱目』厥證, 多以不勝乘其所勝. 如腎移寒於脾, 則爲寒厥, 心移熱於腎, 則爲熱厥. 『入門』厥論寒熱, 皆由腎之精氣內竭而成也. 『綱目』

62) 上揭書, p 784

黃帝曰, 寒厥之爲寒也, 必從五指而上於膝者, 何也. 岐伯對曰, 陰氣起於五指之裏, 集於膝下, 而聚於膝上, 故陰氣勝, 則從五指至膝上寒. 其寒也, 不從外, 皆從內也. 『內經』帝曰, 寒厥何爲而然也. 岐伯曰, 前陰者, 宗筋之所聚, 太陰陽明之所合也. 春夏, 則陽氣多而陰氣少, 秋冬, 則陰氣盛而陽氣衰. 此人者, 以秋冬奪於所用, 下氣上爭, 不能復, 精氣溢下, 邪氣因從而上之也. 氣因於中, 陽氣衰, 不能滲營其經絡, 陽氣日損, 陰氣獨作. 故手

46) 上揭書, p 67

怒則氣逆, 甚則嘔血及殮泄, 故氣上矣

47) 上揭書, p 90

怒則氣逆, 甚則嘔血, 及殮泄矣. 註云, 怒則陽氣逆上, 而肝木乘脾, 故嘔血及殮泄也

48) 上揭書, p 123

怒則氣逆, 甚則嘔血.

49) 上揭書, p 133

入門曰, 一人素無病, 忽吐血半斗, 脈弦急. 陳景魁示之曰, 薄厥證也. 得於大怒氣逆, 陰陽奔併, 用六鬱湯而得愈[方見積聚]

50) 上揭書, p 228

恚怒氣逆上而不下則傷肝, 飲食勞倦則傷脾, 久坐濕地, 強力入房則傷腎. 是正經自病者也.

51) 上揭書, p 235

又曰, 大怒氣逆則傷肝. 『靈樞』

52) 上揭書, p 718

大怒氣逆, 及謀慮不決, 皆令肝火動甚, 脇痛難忍. 宜當歸龍薈丸

53) 上揭書, p 1301

劉河間, 謂嘔者火氣炎上, 此特一端耳. 有痰隔中焦, 食不得下者, 有氣逆者, 有寒氣鬱於胃口者, 有食滯心肺之分, 新食不得下而反出者, 有胃中有火與痰而嘔者. 『丹心』

54) 上揭書, p 212

痰厥者, 皆因內虛受寒, 痰氣阻塞, 手足厥冷麻痺, 暈倒, 脈沈細

55) 上揭書, p 456

頭痛每發時, 兩頰青黃, 眩運, 目不欲開, 懶於言語, 身體沉重, 兀兀欲吐, 此厥陰太陰合病, 名曰痰厥頭痛

56) 上揭書, p 455

當有所犯大寒, 內至骨髓, 髓者以腦爲主, 腦逆, 故令頭痛, 齒亦痛, 乃厥逆頭痛也. 宜羌活附子湯. 厥者, 逆也. 邪氣逆上陽經而作痛, 甚則發厥, 頭痛齒亦痛.

57) 上揭書, p 458

氣血虛而邪氣逆上爲頭痛. 頭痛耳鳴, 九竅不利, 兩太陽穴痛甚, 乃氣虛頭痛也

寒厥로 차가운 것이 반드시 발가락에서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은 陰氣는 다섯 발가락의 속에서 일어나 무릎 아래에 모였다가 무릎위로 모이기 때문에 陰氣가 성하면 다섯 발가락에서 무릎위로 차가운 것이다.

또 寒厥의 생기는 이유는 前陰이란 宗筋이 모이는 곳으로 太陰과 陽明의 습하는 곳인데, 가을과 겨울에 陽氣를 많이 써서 下氣가 위로 올라가서 싸워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精氣가 새어나간다. 이틈을 타서 邪氣가 위로 올라간다. 그로 인해 사기가 속에 있으므로 陽氣가 衰하여 經絡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陽氣가 날로 손상되고 陰氣만 홀로 남아 손발이 차가운 것이다.

또 寒厥중 熱로 인한 것이 있는데 이때는 脈이 沈·數·實한 것으로 滋腎丸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寒厥에는 十全大補湯에 附子를 加하거나 當歸四逆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⑨-② 熱厥⁶³

熱厥이 발바닥에서부터 생기는 이유는 陽氣는 다섯 발가락의 곁에서 일어나고 陰脈은 발바닥에 모였다가 발바닥 가운데로 모이기 때문에 陽氣가 盛하면 발바닥에 열이 난다고 하였다.

또 熱厥이 생기는 사람의 경우는 반드시 자주 술에 취하고 배불리 먹은 후 性生活을 하여 술기운과 穀氣가 脾에 모여 흩어지지 않고 술기운과 곡기가 맞부딪쳐 열이 속에서 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온몸에서 열이 나고 속에서도 열이 나면서 소변이 별경게 된다고 하였다.

즉 술기운은 왕성하면서 날래고 사나워 腎氣가 나날이 衰하여 지므로 陽氣만이 盛하여 손발에 열이 난다고 하였다.

熱厥에는 升陽散火湯, 火鬱湯을 쓴다고 하였다.

⑩ 傷寒陰厥⁶⁴

厥은 손발이 찬 것으로 陰厥은 처음 병이 났을 때 四肢가 싸늘해지고 발에 경련이 많이 일고 누웠을 때 오한이 나거나, 스스로 옷을 당겨서 덮고 물을 마시지 않거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하기도 하는데 大小便이 정상일 때도 있다. 陰厥은 머리가 아프지 않고, 열도 없으며, 마하고 泄瀉하는데도 갈증이 없고, 조

용히 몸을 구부리고 누우며, 손발이 모두 찬 것이다.

각각의 三陰厥의 차이점도 있는데, 太陰厥은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찬 것이고, 少陰厥은 정강이와 발이 찬 것이며 甚하면 찬기운이 손에서 팔로, 발에서 무릎으로 올라온다. 厥陰厥은 온몸이 찬 것으로 손발이 싸늘한데 煩躁가 있으면 치료하기 어렵다. 脈은 沈遲하면서 無力하다.

⑪ 傷寒陽厥⁶⁵

陽厥은 처음에 반드시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픈데 곁에는 陽證이 있다가 4-5일이 지나면 厥症이 생기고 한나절이 지나면 다시 열이 난다. 脈은 伏·滑한데 이는 裏熱로 물을 마시거나 손발을 휘젓거나 煩燥로 잠을 자지 못하고 便秘가 있으며 소변이 별경다.

즉, 대개의 熱厥은 脈이 沈伏하면서 滑하고 손은 비록 차가우나 때로 손톱은 따뜻해지는데, 陽厥은 손발이 싸늘해지기 전에 頭痛이 생기고 몸에 열이 나다가 양사가 깊이 들어가 잠복한 후에 厥症이 발한다.

陰厥과 陽厥의 區別點은 陰厥, 陽厥은 脈이 모두 沈하나 陰厥은 沈遲하면서 無力하고, 陽厥은 沈伏하면서 滑하다. 陽厥은 손발톱이 때로 따뜻해 질 때도 있으나, 陰厥은 늘 차다.

⑫ 食厥⁶⁶

食厥은 사람이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지고 입을 악물고 말하지 못하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四肢를 舉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대부분 음식을 많이 먹어 이상한 병이 생기는 것이다.

⑬ 煎厥⁶⁷

『內經』에는 陽氣는 피로하면 筋脈이 부어오르고 精氣가 고갈되며, 여름이 되면 병이 쌓여 煎厥이 된다고 하였다. 煎厥은 눈이 멀어 볼 수 없고, 귀가 막혀 들을 수 없는데 들끓듯이 기가 거슬러 오르기 때문에 煎厥이라고 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性生活을 들었는데 치료법으로는 滋陰降火라고 하였다.

⑭ 尸厥⁶⁸

63) 上揭書, p 1078

陽厥者, 初得病, 必身熱頭痛, 外有陽證, 至四五日方發厥, 厥至半日却身熱. 蓋熱氣深方能發厥, 若微厥却發熱者, 熱深故也. 其脈雖伏, 按之滑者, 爲裏熱. 或飲水, 或揚手擲足, 或煩燥不得眠, 大便秘, 小便赤. 外證, 多昏憤. 承氣湯, 白虎湯隨證用之. 『活人』下證悉具, 而見四逆者, 是因失下, 血氣不通, 四肢便厥. 醫不識, 疑爲陰厥, 便進熱藥, 禍如反掌. 大抵熱厥, 須脈沈伏而滑者, 手雖冷, 時後指爪溫. 須承氣湯下之. 『活人』厥陰證, 四肢逆冷, 爪甲青, 脈沈疾, 按之有力, 則爲陽, 當下之, 宜大承氣. 『海藏』陽厥者, 未厥前有頭痛, 有身熱. 陽邪深入, 陷伏於內而後發厥. 微厥半日間, 却又發熱, 熱氣下行則腹痛下利, 或便膿血. 若不使血, 則熱氣上行, 必爲喉痺. 『入門』傷寒邪在三陽, 則四肢熱. 半表裏及太陰, 則邪漸入內, 故四肢溫. 至少陰, 厥陰, 邪入深而陷伏於內, 則四肢厥冷. 然先由熱後厥者, 傳經熱厥也. 輕則四逆散, 重則大柴胡, 承氣湯下之. 『入門』熱厥, 脈沈伏而滑, 頭上有汗, 手掌溫, 指稍亦溫, 便宜下. 『入門』

66) 上揭書, p 1243

凡人卒然暈倒, 口噤不能言, 目不識人, 四肢不舉等證. 多因飲食過度, 變爲異常之疾, 必須審問. 若果因飲食之後, 或着氣惱, 多用薑鹽湯多灌, 探吐之後, 服加味六君子湯即愈. 『回春』

67) 上揭書, p 1282

內經曰, 陽氣者, 煩勞則張, 精絕, 積於夏, 使人煎厥. 目盲不可以視, 耳閉不可以聽, 潰潰乎若壞墮, 汨汨乎不可止. 註曰, 以煎迫而氣逆, 因以煎厥爲名. 厥謂氣逆也. 夫目盲所視, 耳閉厥聽, 大矣哉, 房之爲患也. 治法與陰虛火動同, 當用滋陰降火之藥. 『入門』

68) 上揭書, p 1704

尸厥者, 脈動而無氣, 氣閉不通, 故靜如死也. 還魂湯主之. 『仲景』卒然不省人事, 全如死尸, 但氣不絕, 脈動如故, 或脈無倫序, 或乍大乍小, 或微細

足爲之寒也. 『內經』內經曰, 腎虛, 則清厥意不樂. 又曰, 下虛則厥. 寒厥, 脈沈數實爲熱. 東垣治一人, 脚膝尻臂皆冷, 脈沈數有力, 用滋腎丸再服而愈. 又治一人, 上熱下寒, 用既濟解毒湯, 良愈. 則寒厥用藥, 不可不審. 『綱目』寒厥, 宜十全大補湯 加附子, 或當歸四逆湯. 『入門』

63) 上揭書, p 785

黃帝曰, 熱厥之爲熱也, 必起於足下者, 何也. 岐伯曰, 陽氣起於足五指之表, 陰脈者, 集於足下, 而聚於足心, 故陽氣勝則足下熱也. 『內經』帝曰, 熱厥何如而然也. 岐伯曰, 酒入於胃, 則絡脈滿而經脈虛. 脾主爲胃行其津液者也. 陰氣虛則陽氣入, 陽氣入則胃不和, 胃不和則精氣竭, 精氣竭則不營其四肢也. 此人必數醉若飽以入房, 氣聚於脾中, 不得散, 酒氣與穀氣相搏, 熱盛於中, 故熱遍於身, 內熱而尿赤也. 夫酒氣盛而慄悍, 腎氣日衰, 陽氣獨勝, 故手足爲之熱也. 『內經』熱厥, 宜升陽散火湯, 火鬱湯. 厥論寒熱, 皆由腎之精氣內竭而成也. 『綱目』

64) 上揭書, pp 1077-1078

厥者, 手足逆冷, 是也. 其手足指頭微寒者, 謂之清, 此疾爲輕. 『活人』陰厥者, 初得病, 便四肢逆冷, 脈沈微而不數, 足多孿, 臥時惡寒, 或引衣自覆, 不飲水, 或下利清穀, 或清便自調. 外證, 多惺惺而靜, 宜四逆湯, 通脈四逆湯, 當歸四逆湯. 『活人』陰厥者, 無頭痛, 無身熱, 吐利不渴, 靜謐而臥, 手足盡冷. 乃厥陰所主, 陰陽之氣不相接連而然. 太陰厥, 手足指頭微冷者, 理中湯. 少陰厥, 脛寒足冷, 甚則手至臂足至膝者, 四逆湯. 厥陰厥, 一身盡冷者, 當歸四逆湯. 厥逆煩燥者, 不治. 『入門』小便數, 微惡寒者, 陽氣不足也. 心煩足躁者, 陰氣不足也. 『入門』厥陰證, 四肢厥冷, 脈沈遲, 按之無力, 則爲陰, 當溫之, 宜四逆湯. 『海藏』陰厥, 指爪常冷, 足躁臥, 不渴, 清便如常, 外證惺惺. 『得效』

尸厥은 갑자기 人事不省이 되어 완전히 죽은 시체 같지만 숨은 끊기지 않고, 脈은 평상시처럼 뛰거나 脈이 질서가 없거나 잠깐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나 微細하여 잘 나타나지 않지만 가슴이 따뜻한 것이다.

尸厥은 中惡과 같은 것으로 조문이나 병문안을 가거나, 묘에 들어가거나 무덤 위에 올라가서 갑자기 사악한 기운을 받으면 藏氣와 서로 거스르게 되는데 갑자기 손발이 싸늘해지고 머리와 얼굴이 검푸르게 되며, 이를 악물고 चे머리를 흔들며, 어지러워 쓰러지며, 정신이 혼미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또한 헛소리를 하거나 함부로 말한다.

⑮ 客忤卒闕諸證⁶⁹⁾

卒厥로 배가 더부룩하거나 갑자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한나절이나 멀게는 하루가 지나야 사람을 알아보는 이유는 陰氣가 上部에서 旺盛하면 下部가 虛하게 되고, 下部에서 虛하면 배가 脹滿하게 된다.

陽氣가 上部에서 旺盛하면 下部의 氣가 거둬 올라가서 邪氣가 거슬러 오르고, 邪氣가 거슬러 오르면 陽氣가 어지러워지며, 陽氣가 어지러워지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急症에는 氣厥·血闕·痰厥·食厥·中風·中寒·中暑·中濕등이 있다

요 약

각 時代別 醫書에 나타난 厥에 대한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厥의 의미는 『內經』에서는 크게 3가지의 의미로 분류되었는데, 첫 번째는 暴死爲厥로 갑자기 의식을 잃어 人事不省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四肢逆冷이 厥이 된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비교적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厥의 主要病機는 氣血逆亂 或은 濁氣가 上逆하여 病이 된 것을 厥·厥逆·厥氣라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오래된 두통을 厥逆이라 하였으며, 마지막 厥이라는 자는 비교적 重한 疾病앞에 붙어서 사용되었다.

이후 東漢에 이르러 張仲景은 傷寒病中에서 四肢厥冷을 厥이라고 하였다. 『傷寒論』 「辨厥陰病脈證并治篇」에서 이르기를, “陰陽의 기가 서로 순조롭게 만나지 못하면 곧 厥이 생긴다. 厥은 손발이 싸늘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이 뜻이다.

여기서 언급한 厥의 원인은 陰陽의 氣가 서로 순조롭게 접하지 못한 것인데, 비록 『內經』 등에서 말한 ‘氣逆’과 다른 것 같지만, 그 실질을 살펴보면 본래 또한 다르지 않는 것이, ‘逆’은 ‘順’의 뜻과 정확히 상반되므로 ‘逆’이란 바로 ‘不順’을 말하는 것이고 ‘不順’하므로 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手足逆冷’을 ‘厥’이라고 한 것은 본래 氣가 역행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厥’의 개념이 대부분 상고시대의 견해를 따르기는 하지만, 그대로 순환, 반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분류에 있어 더욱 세밀해졌으니. 宋·金·元시대를 거치면서 厥은 病因, 症狀, 種類면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다가, 明代 이후에는 厥을 昏厥이라는 개념이외에 다양한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景岳全書』로써 厥을 기존의 개념에 더하여 氣·血·痰·食·酒·色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景岳全書』 「雜證謨」 〈厥逆〉에 氣厥證을 氣虛와 氣實로 분류하여 昏厥과 기억의 개념으로 설명하였고, 血厥證도 血脫과 血逆으로 분류하여 모두 혼厥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痰厥證은 “일시에 가래침에 막혀 숨이 막히고 혼절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酒厥證은 經에 말한 熱厥에 속하는 것이다. 또 經에서 말한 酒風도 이러한 종류이다.”라고 하였다.

酒厥은 중풍과 아주 유사하지만 濕熱이 상부에 쌓여서 생긴 증상이라고 하였다.

色厥證도 暴脫과 動血로 분류하고, 暴脫은 그 사람이 본래 虛한데다 우연히 이상하게 만나서 힘을 다하여 생기거나, 혹은 너무 오랫동안 그리워하여 情慾을 함부로 고갈시켜서도 생기는 경우이며, 動血이 되는 것은 크게 성내어 피가 거슬러 오르는 것과는 같지 않고 대개 육화가 타오르기 때문에 血이 氣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食厥은 지나치게 술을 먹고 배불리 먹은 데다 갑자기 風寒이나 괴로움, 분노 등을 받아 食氣가 속에서 가득 차 脾胃이 운화가 되지 않아 갑자기 넘어져서 인사불성이 되는 것인데, 잘못하여 中風이나 中氣로 치료하면 죽는다.” 라고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厥의 개념을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中氣로 이는 類中風의 하나로 氣中에 해당하는데 『景岳全書』의 氣實로 인한 厥症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氣逆의 개념으로 여기에는 氣가 위로 치밀어 오르는 개념이 포함되는데 痰厥頭痛·厥逆頭痛·氣厥頭痛·熱厥頭痛·濕厥頭痛·厥心痛이 해당한다. 세 번째는 厥有寒熱로 傷寒論의 寒熱의 편승으로 寒厥·熱厥이 나누어진다. 네 번째는 食厥인데 이는 中焦의 氣가 막혀 퍼지지 못하는 것으로 景岳全書의 食厥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는 煎厥인데 이는 內熱이 陰液을 소진하여서 생기는 虛損病症으로 陰虛證에 해당하며 暑厥과 유사하다. 여섯 번째는 尸厥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東醫寶鑑』에서는 『內經』의 昏厥하는 暴死爲厥의 개념과 氣가 위로 치밀어 오르는 氣逆의 의미를 내포함과 동시에 『傷寒論』의 寒熱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또 『景岳全書』에 있는 食厥이 포함되어 있지만 煎厥과 尸厥의 개념은 『景岳全書』에는 없는 것이다.

상고시대 ‘厥’이라는 이름의 병으로 혼厥을 말한 것은 ‘厥’을 ‘逆’과 ‘欠’으로 나누어 보면, 본래 사람이 쓰러졌지만 숨을 쉬는 증상을 말한 것이며, 病機의 하나로서 氣逆을 말한 것임을 또한 알 수 있다. 이것이 厥의 이름과 뜻의 원류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厥症은 陰陽이 失調하고 氣機가 역란하여, 갑자기 혼절하여 人事不省이 되고 혹 四肢逆冷이 동반하는 것을 주요증상으로 하는 病症이다. 발병 후 일반적으로 단시간 내에 깨어나고, 깨

不見而心胸暖者, 是也。『仲景』尸厥者, 卽中惡之類。凡疔死問疾, 或入墓登塚, 卒中邪惡, 與藏氣相忤, 忽然手足逆冷, 頭面青黑, 牙關緊急, 頭旋暈倒, 昏不知人, 或錯言妄語。急取蘇合香丸三九, 溫酒, 或薑湯灌下

69) 上揭書, p 1706

帝曰, 厥令人腹滿, 或令人暴不知人, 或至半日, 遠至一日, 乃知人者, 何也。岐伯曰, 陰氣盛於上則下虛, 下虛則腹脹滿, 陽氣盛於上, 則下氣重上而邪氣逆, 逆則陽氣亂, 陽氣亂則不知人。『內經』凡卒急之證, 有氣厥, 血厥, 痰厥, 食厥, 中風, 中寒, 中暑, 中濕之類, 皆詳見各門, 隨證治之。

어난 후에 癱瘓, 失語, 口眼喎斜 등의 후유증이 없지만, 특별히 중한 경우 昏厥하는 시간이 비교적 길고, 심지어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한편 후세에 논란 厥은 상고시대의 ‘厥’의 개념과 병증을 기본으로 하고, 본래 實證이면서도 또한 虛證이 있음을 파악하여, 實證은 본래 氣機가 치밀어 오르는데, 혹은 痰이나 血이 따르는 것이고, 虛證은 精이나 血이 아래로 뺏겨 氣가 이 때문에 아래로 탈진되는 것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厥을 분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文獻에 나타난 厥에 대한 개념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

以上에서 厥에 대한 문헌적 考察을 통해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厥은 『內經』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크게 3가지로 분류되었는데 첫 번째는 暴死爲厥로 갑자기 의식을 잃어 人事不省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四肢逆冷이 厥이 된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氣血逆亂과 重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후 『傷寒論』에서의 厥은 전적으로 寒熱의 偏勝으로 인한 寒厥·熱厥로 나누어, 四肢逆冷만을 厥로 정의 하였으며, 明代의 『景岳全書』에 이르러서는 昏厥의 개념을 이어가면서도 氣·血·痰·酒·色厥등의 5

지로 더 細分化하면서도 虛實, 血脫·血逆, 動血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內經』의 昏厥하는 暴死爲厥의 개념과 氣가 위로 치미는 氣逆의 의미를 내포함과 동시에 『傷寒論』의 寒熱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또 『景岳全書』에 있는 食厥이 포함되어 있지만 煎厥과 尸厥의 개념은 『景岳全書』에는 없는 것이다.

『東醫寶鑑』에서는 厥의 개념을 中氣, 氣逆, 厥有寒熱, 食厥, 煎闕, 尸厥등의 6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景岳全書』와 마찬가지로 『內經』, 『傷寒論』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景岳全書』와 『東醫寶鑑』의 개념 중 일정 부분이 手足冷症의 원인에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龔廷賢. 『對譯萬病回春』. 서울, 법민문화사, 2007.
2. 金達鎬, 李鐘馨. 『黃帝內經素問 上·下』. 서울, 의성당, 2002.
3. 金達鎬, 金重漢. 『黃帝內經靈樞』. 서울, 의성당, 2002.
4. 김정찬. 『國譯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정담, 1999.
5. 唐宗海. 『血證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6. 大塚敬節. 『실제한방진료』. 서울, 일문사, 1982.
7.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8. 吳謙. 『醫宗金鑑·中國醫學大系 49권』. 서울, 도서출판정담,

表 1. 厥에 대한 醫書別 內容

時代	醫書名	厥에 대한 內容
秦	內經	厥에 대한 개념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첫째는 暴死爲厥로 갑자기 의식을 잃어 人事不省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四肢逆冷이 厥이 된다는 개념이며 세 번째는 비교적 복잡한 의미의 厥로 氣血逆亂 혹은 濁氣가 上逆하여 病이 된 것을 厥로 보았다.
漢	傷寒論	厥은 전부 手足冷症만을 의미하며 寒厥은 寒邪의 熾盛과 陽氣의 虛衰로 인해 나타나고 熱厥은 熱邪가 熾盛해 外로 미치지 못해 手足厥冷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隋唐	巢氏諸病源候論	手足逆冷의 原因을 모두 陰氣가 盛한 것으로 표현하였다.
南宋	扁鵲心書	厥의 原因은 憂思, 恐驚으로 인해 胃氣가 中焦에 虛閉하여 上升下降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데 그 根源은 氣에 있고 下虛한 症이라 하였다.
金	三因極一病證方論	寒厥은 多慾하여 精이 奪해 생기고, 熱厥은 醉飽入房으로 精虛하여 熱한 까닭으로 생긴다고 하였다.
金	劉河間三六書	煎闕과 薄厥症에 대해 언급하면서, 煎厥症은 主熱하고 陽氣煩勞 積於夏라 했으며 薄厥症은 主肝하고 陽氣가 大怒하여 생긴다고 하였다.
元	丹溪心法	厥逆의 原因을 氣虛·血虛·有痰·有熱·有外感으로 나누어 脈의 변화를 살폈으며 특히 氣虛를 위주로 언급하였다.
元	脈因證治	寒厥, 熱厥을 陽氣와 陰氣의 偏勝으로 설명하였다.
明	醫學正傳	熱極似陰의 病機를 설명하면서 脈微欲絕而死者는 極熱한 所致라 설명하였다.
明	醫學入門	入門에서는 厥症의 意味와 煎闕·薄厥·尸厥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특히 六經厥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他醫書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다. 아울러 內傷으로 인한 경우로 薄厥과 痰火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煎闕·尸厥·寒厥·熱厥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明	萬病回春	陽厥과 陰厥의 차이를 脈으로 비교하였는데, 陽厥은 脈이 滑하면서 沈實하고, 陰厥은 細하면서 沈伏하다고 했다.
明	景岳全書	厥逆이란 危症으로 대개 厥은 盡이고 逆은 亂이니 氣血이 敗亂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 厥의 종류를 氣厥·血厥·痰厥·酒厥·色厥등으로 나누었는데 특히 여기에도 虛實, 血脫·血逆, 動血등으로 나누어 더 세분하게 증세를 구분하였다.
清	證治彙補	厥에는 手足厥冷한 것과 人事不省의 二種이 있는데 傷寒의 手足厥冷은 陽厥, 陰厥로 분류하고 人事不省의 厥은 寒厥, 熱厥로 분류한다고 하였다. 厥의 外候에서 痰聲이 없는 것이 中風과의 差異點이라고 설명하였다.
清	辨證奇聞	陽厥과 陰厥의 症狀과 機轉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陽厥은 사람이 갑자기 發熱이 나고 手足이 얼음처럼 차지며 頭暈眼昏하는 증세고, 陰厥은 야간에 發熱이 나고 일시에 厥逆이 생기는 증세라고 하였다.
清	張氏醫通	厥의 증상은 忽然昏倒 人事不省 手足厥冷이라 하였고 陽證이 陰證으로 轉移되어 手足이 차게 된것을 熱厥이라 했고, 陰證으로 惡寒하고 手足이 찬한 것을 寒厥이라 한다고 했다.
清	醫宗金鑑	三陰經의 厥의 有無에 대해서 논했는데, 太陰經은 厥逆은 없고, 少陰經은 寒厥이 있고 熱厥은 없으며, 厥陰經은 寒熱二厥이 있다고 하였다.
清	血證論	雜病의 厥과 伏火의 厥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雜病之厥은 吐利가 멎지 않고 脈脫하고 氣微하며 有寒無熱이라 했고, 伏火之厥은 厥後에 熱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다.
朝鮮	東醫寶鑑	厥의 개념을 크게 6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첫 번째는 中氣로 이는 類中風의 하나로 氣中에 해당하는데 景岳全書의 氣實로 인한 厥症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氣逆의 개념으로 여기에는 氣가 위로 치밀어 오르는 개념이 포함되는데 痰厥頭痛·厥逆頭痛·氣厥頭痛·熱厥頭痛·濕厥頭痛·厥心痛이 해당한다. 세 번째는 厥有寒熱로 傷寒論의 寒熱의 편승으로 寒厥·熱厥이 나누어진다. 네 번째는 食厥인데 이는 中焦의 氣가 막혀 퍼지지 못하는 것으로 景岳全書의 食厥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는 煎闕인데 이는 內熱이 陰液을 소진하여서 생기는 虛損病症으로 暑厥과 유사하다. 여섯 번째는 尸厥로 나타난다.

- 1999.
9. 王氷炎, 魯北麟主編. 『中醫內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9.
 10. 虞 搏. 『醫學正傳』. 서울, 정보사, 1986.
 11. 劉河間. 『劉河間三六書』. 서울, 정보사, 1975.
 12. 윤석희, 김형준, 최철한, 전지훈, 남무길, 강영희, 성민규, 안상영. 『對譯東醫寶鑑』.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2005.
 13. 李鳳教. 『症狀鑑別治療』. 서울, 정보사, 1991.
 14. 李用粹. 『證治彙補』. 台北, 旋風出版社, 中華民國 65년.
 15. 李 梴. 『醫學入門』.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77.
 16. 張 綱. 『中醫百病名源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17. 張伯臾. 『中醫內科學』.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8.
 18. 張 璐.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3.
 19. 張子和. 『儒門事親』. 臺北, 旋風出版社, 1978.
 20. 張仲景.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정담, 1999.
 21. 錢 松. 『辨證奇聞』. 서울, 행림출판, 1989.
 22. 조동한, 피영호. 『國譯扁鵲心書』. 서울, 서원당, 1998.
 23. 朱文鋒. 『中醫診斷與鑑別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9.
 24. 朱震亨. 『丹溪心法』. 서울, 대성문화사, 1982.
 25. 朱震亨. 『脈因證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26. 陳無擇. 『三因極一病證方論』. 서울, 一中社, 1992.
 27. 蔡仁植, 安秉國, 李炳幸. 『國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남산당, 1988.
 28. 崔達永. 『傷寒論釋講』. 서울, 대성문화사, 1995.
 29. 扁 鵲. 『扁鵲心書』. 影印本, 1994.
 30. 許 浚. 『東醫寶鑑』. 서울, 대성출판사, 1990.
 31. 方正均. 厥證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原典學會誌 18(2), 2005.
 32. 유형천, 곽정진, 최창원, 이강녕, 이영수, 김희철. 췌장의 병인 병기 및 치방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의학 방제학회지 11(1):57-90, 2003.
 33. 李京燮. 厥의 原因에 대한 考察. 大韓漢醫學會誌 4(2), 1983.
 34. 이화신, 김지혁, 황의완. 췌장에 관한 문헌적 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4(1):65-75, 1993.